

IBKS CARBON FINANCE DIVISION

Invitation to Better Carbon Story

WEEKLY REPORT
VOL.23
2025.11.24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EU·CORSIA까지 합류, 제6조 크레딧 수요 폭발적 증가 예상
- EU, CBAM 검증기관 인증 기준 확정, 2026년부터 본격 시행
- CDM → PACM 전환 가속, CDM은 2026년 말 폐쇄
- 싱가포르, COP30에서 말라위와 제6조 탄소협력 MoU 체결
- 몽골, COP30서 스위스와 제6조 탄소시장 협정 체결 예정
- 가나, 새로운 Article 6 수익 배분 모델 제안
- 노르웨이, EU ETS 개편에 맞춰 CCS 산업화 가속 전망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EU·CORSIA까지 합류, 제6조 크레딧 수요 폭발적 증가 예상

제출된 2030년 국가결정기여 (NDC)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파리 협정 제6조 하의 국제 감축실적 이전 (ITMO) 수요가 약 2억 톤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

일본·한국·싱가포르 등이 이미 강한 수요 신호를 보내고 있으나, 현재까지 승인된 프로젝트 공급량은 수천 톤 수준에 불과해 수요 대비 공급 격차가 큰 상황

EU가 2040년 목표에 일부 제6조 크레딧 사용을 허용함에 따라 장기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CORSIA 항공 분야에서도 추가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

이에 향후 국제 탄소시장에서는 수요 폭증 대비 공급 부족 문제가 핵심 리스크로 부상할 전망



EU, CBAM 검증기관 인증 기준 확정, 2026년부터 본격 시행

EU 집행위가 CBAM 배출보고서를 검증하는 감사자와 검증기관의 자격 기준 및 독립성 요건을 규정한 시행규정을 공개

각 EU 회원국이 지정하는 국가 인증기관은 검증자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매년 감시하며, 검증 인력은 CBAM 관련 기술·데이터 감사 지식 등 구체적 역량을 갖춰야 함.

이해충돌이 있는 기관 및 인력은 배제되며, 동일 시설을 5년 연속 감사한 경우 3년의 휴지기를 두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

EU는 향후 국가 인증기관 간 상호 평가를 통해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해야 하며, 본 규정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



CDM → PACM 전환 가속, CDM은 2026년 말 폐쇄

COP30에서 각국은 기존 제6조 규칙을 재개정 없이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PACM (파리협정 신용 메커니즘) 운영을 위한 자원 부족 해결을 위해 CDM 자금 약 3천만 달러 (약 440억 원)를 PACM으로 이전하기로 결정

CDM은 2026년 말 공식 종료되며, CDM에서 PACM으로 전환하려는 프로젝트에는 호스트국 승인 확보를 위한 추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됨.

금번 COP30 합의는 전체적으로 PACM 체계 출범을 위한 자원 확보 및 제6조 규칙의 안정적 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



싱가포르, COP30에서 말라위와 제6조 탄소협력 MoU 체결

싱가포르는 COP30에서 말라위와 파리협정 제6조 하에서 탄소크레딧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

양국은 ITMO 승인·이전 절차, 환경무결성 기준, 이중계산 방지 요건을 포함한 법적 구속력 있는 이행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

싱가포르는 이미 케냐·세네갈·가나 등과 제6조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말라위는 올해 초 100만 톤 이상의 ITMO 이전 계획을 제출한 바 있어 제6조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

싱가포르는 자국 탄소세 이행을 위해 해외 크레딧을 최대 5%까지 허용하고 있어 해외 감축 프로젝트 확보가 전략적으로 중요해지는 추세

싱가포르와 말라위는 양국의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제6조 적합 프로젝트 후보를 추가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힘.



몽골, COP30서 스위스와 제6조 탄소시장 협정 체결 예정

몽골이 COP30에서 파리협정 제6조를 통한 탄소크레딧 협력 촉진을 위해 스위스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할 예정이라 밝힘.

몽골은 이미 일본·한국·싱가포르와 제6.2조 협정을 맺은 바 있으며, 일본과의 JCM 경험을 스위스와의 파트너십 기준으로 삼을 계획

또한 제6조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정부 승인을 목표로 새로운 기후법을 준비 중이며, 최신 NDC에서도 제6.2조 접근 방식 활용 의지를 명시, 제6조 참여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구축을 진행 중



가나, 새로운 Article 6 수익 배분 모델 제안

가나는 Article 6 거래의 수익 중 5%를 기후 행동, 친환경 산업 지원 등 기후 적응기금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배분 모델을 제안

이는 제 6조의 수익 기금의 5%를 각각 40%, 30%, 20%, 10%의 비율로 감축활동 감독 부처, 재무부, 저탄소 스타트업, 행정 비용에 배정하는 내용을 포함

가나는 스위스·스웨덴·싱가포르와는 이미 제6.2조 협정을 체결했으며, 한국과의 협정도 대기 중



노르웨이, EU ETS 개편에 맞춰 CCS 산업화 가속 전망

EU가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90% 감축 목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영구적 탄소 제거를 ETS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는 산업계의 잔여 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노르웨이는 이러한 변화가 CCS 산업의 수익성과 확장성을 크게 높여 줄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

노르웨이는 해저 CO₂ 저장 서비스를 유럽에 상업적으로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현재 탄소 포집·운송·저장 계약에 실제로 나서는 배출 기업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제약

노르웨이는 CCS가 유럽의 핵심 감축 솔루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책결정자들의 장기적 경제적 확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ETS 개편이 이를 위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평가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탄소배출권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 & 기술 & 설비 투자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